

2025년 북중·북러 무역 분석

최장호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choi.j@kiep.go.kr
최유정 |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전문연구원 | choiyj@kiep.go.kr

I. 머리말

북중·북러 무역은 북한경제 상황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매우 중요한 경제 지표 중 하나이다. 특히 북중 무역은 북한 무역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이 95%를 전후하고 있어 북한경제에 갖는 의미가 크다. 북한경제는 산업생산에 필요한 원유, 정제유(휘발유, 디젤), 천연/합성고무(기계벨트와 패킹, 타이어), 합성수지(플라스틱), 섬유 및 의류, 화학관련 화합물, 기계부품, 전자부품 등은 수입에 의존하는 것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중 무역을 분석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준다.

2025년 북한경제를 관통하는 것은 ‘경제발전 5개년 계획(2021~25년)’의 마지막 해, ‘지방발전 20×10 정책’의 본격적인 추진 2년 차 해, 가공무역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 철강(금속) 및 화학 산업 활성화, 도시 및 농촌 살림집 건설 및 현대화 사업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를 북중 무역과 연관시키면, 경제발전 5개년 계획과 관련하여 12개 중요고지 달성을 위한 수입 여부를 살펴볼 수 있으나, 북한은 제8기 제9차 전원회의(2023. 12. 26~30)에서 12개 중요고지들이 모두 점령되었다고 발표한 바 있어 2025년 무역 분석으로는 살펴보기 어려워 보인다. 지방발전 20×10 정책은 도시 및 농촌 살림집 건설 및 현대화 사업과 연관성이 큰데, 건축 자재 수입을 통해 관련 정책의 성과를 분석해 볼 수 있다. 가공무역을 통한 외화 수입 증대는 섬유·의류 수입과 연관성이 크고, 철강(금속) 및 화학 산업 활성화는 코크스와 산업용 촉매와 연관지어 검토해 볼 수 있다.

II. 북중 무역 통계 분석

1. 개관

2025년 1~12월 대중 수입은 22억 9,469만달러로 2024년 18억 3,303만달러 대비 25.2%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22억 1,706만달러보다 많은 수준인데, 수입 규모 면에서 북한경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 UN 대북 제재 이후의 기간인 2018~19년 수준의 구매력을 회복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북한과 경제 규모가 유사한 미얀마, 라오스, 캄보디아가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중에도 수입 규모가 별다르게 줄어들지 않았던 점을 보면 북한경제의 회복력은 국제적으로 볼 때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같은 기간 대중 수출은 4억 4,018만달러로 2024년 3억 4,736만달러 대비 26.7% 증가하였다. 북한의 2018~19년 연평균 대중 수출이 2억 1,420만달러였던 점을 고려하면 2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UN 대북 제재 장기화로 북한이 대북제재를 우회하여 대체 수출품목인 가발·가수염·속눈썹을 육성한 것이 그 주요 요인이다. 수출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비공식수출, 즉 밀수출이다. 섬유·의류가 밀수출 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나 그 규모를 알기 어렵다. 그 규모를 추정하기 위하여 다소 무리가 따르기는 하나 과거 데이터를 적용하여 보면, 2015~16년에는 연평균 섬유·의류 대중 수입액이 4억 3,462만달러였고, 대중 수출액은 6억 9,841만달러였는데, 수입과 수출의 교환 비율이 1:1.6이었다고 할 수 있다. 무리가 따르기는 하지만 2025년 섬유·의류의 대중 수입액은 8억 1,464만달러이므로 수치상으로는 13억 908만달러가 밀수출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해 볼 수 있다. 여기에서 공식적으로 수출되고 있는 가발·가수염·속눈썹의 대중 수출액 2억 508만달러를 제외하면 약 11억달러 규모가 된다. 다만, 이러한 추정은 북한의 내부 산업과 소비 구조가 지난 10년 변하지 않고 동일하다는 다소 무리한 가정에 기반한 것으로 그대로 적용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

2025년 대중 상품수지는 -18억 5,451만달러로, 이는 2024년 -19억 3,001만달러(한화 2조 8,530억원) 대비 24.8% 악화한 것이다. 1990년 이후 북한의 통상적인 연평균 대중 상품수지는 -6억달러 수준이었다. 그러나 UN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8~19년 동안 -21억 8,123만달러로 상품수지가 늘었다. 2020~22년 동안 대중 수출입이 대폭 줄어 상품 무역수지가 -4억 4천만달러 내외로 유지되었으나, 2023~25년 동안 다시 대폭 늘어 연평균 -16억 6,552만달러를 기록하였다.

외견상 2025년의 상품수지 적자는 북한 당국이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라고 기대하기

어려운 규모의 무역 적자이다. 북한 당국은 2025년 대러시아 무기 수출, 가상화폐 해킹 등 신규 외화 수입원을 발굴하고, 북한 주민에게 사회적 과제를 부여하여 민간이 보유한 외화를 흡수하는 정책을 펼쳤으며, 코로나19 팬데믹 기간인 2020~22년 동안 대중 수입이 연평균 5억 달러 이하로 유지되면서 상당한 수준의 외화 보유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이 재원을 활용하여 2023~25년 동안 상당한 규모의 무역 적자를 감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북한경제 규모를 고려할 때 2025년의 상품수지 적자는 북한 GDP(한화 35~45조 원)의 6~8% 수준에 달하는 것으로 경제에 부담스러운 규모이다. IMF에서는 별다른 이유없이 GDP 대비 무역적자가 5~10%에 이를 경우 경제에 대한 경고 단계로 외부 자본에 지나치게 의존하게 되고 대외충격에 매우 취약하게 된다. 외견상 북한경제는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것이 된다.

[그림 1] 대중 수입(좌), 대중 수출(우), 대중 상품수지(아래)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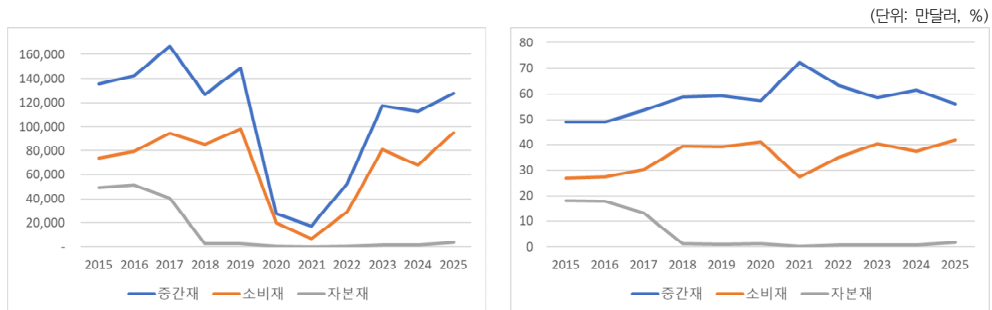
그러나 위에서 단순 추정한 바대로 섬유·의류의 밀수출액을 포함하면 상품수지 적자는 작아지게 된다. 앞서 추정에 무리가 많이 따른다고 강조하였지만 섬유·의류 밀수출액을 포함하면 2025년 상품수지 적자는 약 5억 5천만~7억 5천만달러 수준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 정도 규모는 북한경제가 통상적으로 기록하였던 대중 상품수지 적자 6억달러와 유사한 것으로 북한경제가 감당할 수 있는 규모의 것이 된다. 필자가 밝히고 싶은 것은 북중 무역 통계에 나타난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보다는 실제 적자 규모가 훨씬 작을 것이라는 것이다.

2. 대중 수입

가. 사용 용도별 분석

대중 수입을 사용 용도별로 분석하면, 규모 면에서는 중간재 수입이 12억 7,873만달러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소비재가 9억 5,302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증가폭 면에서는 소비재의 증가폭이 전년 대비 39.5%로 제일 컸고 중간재가 13.5%로 그 다음이었다.

[그림 2] 사용 용도별 대중 수입 추이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사용 용도별 수입의 변화만 보면 2025년 북한의 경제성장은 소비재 수입 증가가 견인했다고 볼 수 있다. 산업 생산이 어느 정도 버티고 있는 가운데, 소비재 수입이 매우 빠르게 증가하였다. 전체 수입 증가액 약 4억 1,705만달러 중 소비재 증가가 2억 7,007만달러, 중간재 소비재 증가가 1억 5,219만달러로 소비재의 증가가 수입 증가를 이끌었다. 규모 면에서 중간재 수입도 감소한 것은 아니지만, 소비의 증가 폭이 중간재 수입의 약 2배에 달하였다.

소비재 수입 증가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해석이 가능해 보인다. 소비재 증가의 이유를 명확히 밝히기 어려우나 설명 가능한 가설을 제시하면, 첫째, 2024년 소비재 수입이 감소한

데 따른 기저효과일 수 있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동안 줄어들었던 주민 수요가 2025년에 대폭 늘어나면서 소비가 늘었을 가능성이 있다.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농촌에 살림집이 건설되고 지방 도소재지를 중심으로 경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면서 그에 맞는 가전제품, 가구, 의류, 식료품 등의 고부가가치 소비재의 수요가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둘째, 북한 당국이 사회주의 유통체계 확산, 즉 민간 주도의 시장을 억제하고 국영기업 유통체계를 확정하기 위해 소비재 수입품을 국영상점 유통망 중심으로 유통시키면서 소비재 수입이 증가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셋째, 인민대중제일주의를 추진하면서 북한 주민의 생활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소비재 수입을 증가시켰을 수도 있다. 여러 산업 분야 중 농업 분야의 소비재 수입이 2024년 2억 352만달러에서 2025년 3억 3,519만달러로 1억 3,167만달러 증가하였다. 전체 소비재 수입 증가분 2억 4,327만달러 중 약 54.1%가 농업 분야에서 발생한 것이다. 농식품(콩기름, 설탕, MSG)의 증가폭이 기대 이상으로 컸다. 2025년의 소비재 증가는 북한 주민의 후생을 빠르게 증가시켰을 가능성이 있다.

반면, 이러한 추세, 즉 소비재의 증가폭이 중간재 수입의 증가 폭보다 큰 것은 첫째, 북한의 순외화 유출을 의미한다. 북한의 외화 수입 구조가 건전하지 못한 것과 결부하면 이는 현재의 수입 구조가 지속가능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자본재, 즉 기계설비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소비재가 큰 폭으로 증가하는 것은 미래 성장 잠재력을 잠식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지 못하다. 현재의 소비재 증가는 지속되지 못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나. 산업별 분석

산업별로 수입의 변화를 보면, 첫째 섬유·의류 가공무역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섬유·의류 수입액은 8억 1,464만달러로 전 산업 분야 중 가장 컸다. 이는 북한이 중국으로부터 원부자재를 수입하여 가공한 뒤 다시 재수출하여 외화를 벌어들이는 임가공 무역에 정책적인 역량을 기울이고 있음을 의미하며, 북중 무역통계에 공개된 가발·가수염·속눈썹 외에도 통계에 나타나지 않은 비공식무역이 상당한 규모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둘째, 농업 분야 수입액의 급증이 두드러졌다. 이는 앞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북한 주민의 구매력 증가와 북한 당국의 정책적인 장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셋째, 플라스틱·고무의 수입이 3위를 차지하였다. 플라스틱과 고무는 신발, 용기, 비닐 박막, 타이어 등 주민 생활필수품과 농업용 자재를 만드는 핵심 기초 원료이며, 소비품이기도

하다. 타이어는 북한 물류 운송의 핵심 수단이기도 하다. 2025년 지방발전 20×10 정책으로 경공업 공장이 건설되고, 도시·농촌 살림집 건설이 이루어지며, 도시 경관 현대화 사업이 추진되고, 경제가 회복되면서 플라스틱·고무의 수입이 소폭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

넷째, 목재와 광업 분야의 수입이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목재 수입 증가는 평양 5만 세대 살림집 건설 및 도 소재지 경관 현대화 사업에 필요한 건축 마감재와 가구 제작 수요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광업 분야 중간재 수입은 북한의 내수용 및 대외 수출용 광물 채굴을 지원하기 위한 장비 부품과 연료 확보 차원에서 지속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표 1〉 산업별 대중 수입 추이

(단위: 만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업	62,541	69,088	22,048	5,525	23,253	52,771	29,717	46,035
화학	24,985	25,849	6,826	7,823	16,440	28,020	17,095	18,413
전기	810	551	103	4	4	83	14	5
기타	10,503	15,907	2,139	250	1,584	5,246	8,767	14,222
섬유·의류	60,967	75,541	6,900	2,216	16,550	60,092	66,717	81,464
기계	685	66	32	-	-	100	16	13
수산	7,213	5,723	515	-	3	971	2,230	2,528
광업	11,358	13,831	1,662	761	3,043	10,083	12,216	14,775
플라스틱·고무	27,646	33,595	6,014	6,310	17,094	27,398	28,752	31,788
철강(금속)	192	44	4	-	-	77	2	68
목재	14,623	17,147	2,810	1,399	5,360	15,418	17,777	20,136
운송수단	183	37	47	-	-	2	1	23
계	221,706	257,379	49,100	24,288	83,331	200,261	183,304	229,470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다. 품목별 분석

품목별로 분석하면, 가장 두드러지는 것은 가공무역을 위한 섬유·의류 원부자재의 수입인데, 사람머리카락(HS 6703)의 수입액이 2억 822만 달러로 2위인 콩기름보다 2배 가까이 많다. 이는 중국에서 인모를 들여와 가발이나 속눈썹으로 가공하여 재수출하는 임가공 무역이 북한의 산업에서 중요한 외화별이 수단임을 보여준다. 전년 대비 23.3% 증가하며 견고한 성장세를 보였다. 섬유류(HS 5407, 6006)는 각각 3위, 4위를 차지하였는데, 이는 사람머리카락과 마찬가지로 의류 임가공 수출을 위한 중간재 수입이 활발하게 이루어짐을 의미한다. 섬유류의 수출은 가발·속눈썹과 달리 북중 무역 통계에 드러나지 않는 비공식무역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식품 수입 증가가 두드러진다. 식료품의 수입 증가는 2024년 수입액이 많지 않은 기저효과, 북한 주민들의 구매력 회복, 북한 당국의 국영상점을 통한 유통 확충 의지 등이 반영된 결과인 것으로 사료된다. 설탕(HS 1701)이 10위를 차지하였는데, 전년 대비 증가율이 142.4%로 높게 기록되었다. 또한 기초 식재료인 콩기름(+32.2%)과 가금류 등의 고기류(+65.4%) 수입이 크게 증가하였다.

2025년 화성지구 3단계 준공 및 제4단계 착공, 그리고 3만 2,000여 세대의 농촌 살림집 건설의 영향으로 가구와 부품(HS 9403) 수입이 5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신규 주택 입주를 위해 수입된 것으로 사료된다. 도자제 판석과 세라믹(HS 6907)은 7위를 기록하였는데, 이는 아파트 외벽이나 내부 타일로 사용되는 자재이며, 동시에 고열이 발생하는 용광로나 발전 시설의 타일로 사용되는 것이기도 하다. 도자제 판석과 세라믹은 대규모 타일 작업이 필요한 특정 공정이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고무타이어(HS 4011, 6위), 플라스틱필름(HS 3920, 8위) 등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 고무타이어는 물동량 증가에 따른 화물차용 타이어 수요가 반영된 것이며, 플라스틱 필름은 농업용 온실(비닐하우스)과 식료품 포장에 사용되는 것이다. 이는 강동군 종합온실 등 대규모 온실농장 건설, 그리고 지방발전 20×10 정책 추진에 따른 식료품 포장에 사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표 2> 품목별 대중 수입 추이

(단위: 만달러, %)

순위	HS4	품목	수입액	증감율
1	6703	사람머리카락	20,822	23.3
2	1507	대두유(콩기름)	12,790	32.2
3	5407	합성필라멘트사 직물	10,949	10.5
4	6006	메리야스 편물	5,639	26.5
5	9403	가구와 부품	5,305	3.3
6	4011	고무타이어	4,783	34.9
7	6907	도자제 판석과 세라믹	3,791	-6.3
8	3920	플라스틱 필름	3,754	17.6
9	0207	가금류 고기(신선, 냉장, 냉동)	3,714	65.4
10	1701	사탕수수당(설탕)	3,426	142.4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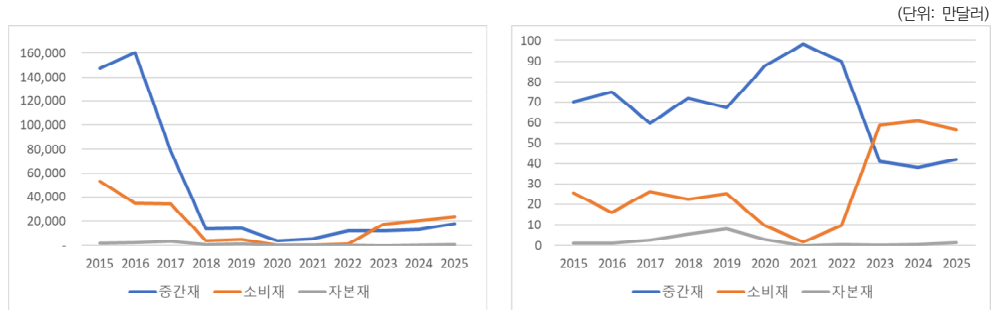
3. 대중 수출

가. 사용 용도별/산업별 분석

2025년 1~12월 대중 수출을 사용 용도별로 분석하면, 규모면에서는 소비재 수출이 2억 3,754만달러로 가장 컸고, 다음으로 중간재 수출이 1억 7,600만달러로 뒤를 이었다.

그러나 증가폭 면에서는 중간재 소비재가 35.9%로 가장 컸고, 소비재가 15.3%로 뒤를 이었다. 자본재의 증가폭이 크기는 했으나 금액이 작아 큰 의미는 없다.

[그림 3] 사용 용도별 대중 수출 추이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북한의 수출 상품은 상대적으로 구성이 단순하여 이해하기가 쉽다. 수출 품목 중 중간재는 주로 광물이며, 소비재는 가발·가수염·속눈썹이다. 위의 내용을 종합하면 북한의 수출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소비재이며, 그 핵심은 임가공산업이라고 할 수 있다. 앞서 설명한 것처럼 북한의 수입 1위 품목이 사람머리카락(HS 6703)이기 때문이다. 북한 수출에서는 임가공산업이 수입을 지속하기 위한 외화벌이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산업별로 수출의 변화를 보면, 2016~17년 UN 대북 제재 강화 이후 북한의 수출 산업은 특정 산업에 쏠려 있는 불균형적 구조를 보인다. 섬유·의류 산업이 전체 수출의 47.8%를 차지할 정도로 집중도가 심하며, 그 뒤를 기타, 그리고 광물이 뒤따르고 있다. 후술하겠으나 기타는 개인이 휴대하여 개인 소비용 목적으로 수출하는 것이다. 기타의 경우 소규모여서 구체적인 내역을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나, UN 대북 제재로 수출이 금지된 품목이 일부 포함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표 3〉 산업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만달러)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농업	1,430	272	39	263	15	149	543	785
화학	607	833	246	286	649	1,159	1,232	3,176
전기	1,238	1,143	1,185	1,694	2,039	2,226	2,220	2,435
기타	6,523	8,280	1,230	408	315	661	3,489	6,685
섬유·의류	3,188	4,399	323	412	2,389	17,395	20,000	21,908
기계	3	0	-	-	-	-	-	-
수산	-	-	-	-	-	-	-	-
광업	4,285	2,746	595	60	5,131	3,979	4,790	5,087
플라스틱·고무	78	116	7	-	2	7	59	168
철강(금속)	3,447	3,471	1,146	2,682	2,774	3,404	2,144	3,342
목재	516	264	24	-	3	130	260	433
운송수단	0	0	-	-	50	65	-	-
계	21,315	21,524	4,795	5,805	13,367	29,175	34,737	44,019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나. 품목별 분석

품목별로 분석하면, 가발·속눈썹·가수염이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북한이 저렴한 노동력을 활용한 임가공을 하고 있고, 전년 대비 9.2% 증가하면서 견조한 성장세를 보였다.

다음으로 금속(철강) 제품의 수출도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규모 면에서는 소비재에 뒤지지만, 성장폭 면에서는 중간재 성격의 산업용 원자재(금속) 수출이 눈에 띄게 늘었다. 이는 북러 협력으로 인한 금속(철강) 산업과 화학 산업 활성화의 영향도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합금철이 3,016만달러 수출되어 전년 대비 44.5% 증가하였고,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몰리브덴광과 정광, 탄화물 등의 성장세도 두드러졌다.

광업은 다소 지체되었는데, 텅스텐(HS 2611)의 수출이 역성장하였다. 그리고 휴대용시계무브먼트의 수출도 35.8% 증가하였다. 완구/장난감(HS 9503, 세발자전거 또는 인형용 차)의 수출도 9위로 전년 대비 853.4% 증가하였다. 전기에너지 수출도 풍부한 강수량을 바탕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하였다.

〈표 4〉 품목별 대중 수출 추이

(단위: 만달러, %)

순위	HS4	품목	수출액	증감율
1	6704	가발·가수염·눈썹	20,502	9.2
2	7202	합금철(띠로실리콘)	3,150	0.3
3	2611	텅스텐과 텅스텐 암석	3,016	44.5
4	2716	전기에너지	2,435	9.7
5	9108	휴대용시계의 무브먼트	2,211	35.8
6	3824	조제 점결제	2,159	474.8
7	9804	기타(개인소비용품)	2,030	106.2
8	2613	물리브덴광과 정광	1,719	13.7
9	9503	세발자전거, 인형용 차	776	853.4
10	2849	탄화물(탄화칼슘, 탄화규소 등)	634	10.1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4. 성시별 무역

북한의 대중 수출입은 4개 성시에 집중되어 있다. 랴오닝성과 지린성은 북한이 접경하고 있는 성시로, 대중 무역의 대부분이 이루어지는 곳이다. 2025년 기준으로 랴오닝성과 지린성으로부터의 수입은 전체 수입의 71.1%, 수출은 전체 수출의 80.8%를 차지한다. 광둥성, 산둥성은 접경하지 않아 북한이 무역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기 어려운 성시인데 이들 과의 무역은 UN 대북 제재가 강화된 2018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였다. 랴오닝성과 지린성과의 무역에 대해 국제사회의 감시가 강화되면서 북한이 이를 회피하기 위하여 광둥성, 산둥성과의 수출입을 증가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표 5〉 대중 수출입의 주요 성시별 추이

(단위: 만달러)

구분	순위	성시	2022	2023	2024	2025
대중 수입	1	랴오닝	58,300	105,069	71,255	128,791
	2	지린	1,194	16,696	24,207	34,050
	3	광둥	4,988	42,742	62,004	23,066
	4	산둥	9,314	10,548	12,276	16,179
	5	장쑤	0	0	3,279	5,596
대중 수출	1	랴오닝	10,478	13,477	13,900	19,787
	2	지린	1,445	8,219	13,924	15,789
	3	산둥	526	802	3,750	7,043
	4	광둥		2,320	2,403	792
	5	푸젠				145

주: 순위와 성시는 모두 2025년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음.
자료: 중국 해관 자료를 활용하여 저자 작성.

III. 북러 무역

북러 무역액은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려운데, 러시아의 세관(The Federal Customs Service of Russia)가 2022년 3월부터 관련 통계를 발표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때문에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은 언론발표에 의지할 수밖에 없다. 2023년 북러 무역액은 3,440만달러로 추정되는데 Yuri Ushakov(유리 우샤코프) 대통령 외교담당보좌관이 발언한 것에 근거한 것이다.¹⁾ 현재까지는 3,440만달러가 공식적인 북러 무역액으로 간주되고 있다.

2024년 무역액도 발표된 수치의 격차가 큰데, Olena Guseinova(2024)²⁾는 2024년 상반기에 만 5,290만달러라고 추정하였는데, 이 추정치는 푸틴 대통령이 평양에 방문하였을 때 언급한 내용, 즉 2024년 상반기 북러 무역이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하였다는 것에 근거한 것이다. 이에 근거하여 기계적으로 2024년 북러 무역액을 추정하면 1억 580만달러가 된다. 반면, 한국의 국정원이 2024년 국회 정보위원회에 보고한 것에 따르면 2024년 북러 무역액은 약 2억달러이다. 또, 다른 언론 보도에서는 러시아 관영 스포트니크 통신의 발언, 국제수출입자협회 산하 국제물류위원회 예브게니 니키코로프 의장이 한 세미나에서 2024년 북러 무역이 3,400만달러에 달한다고 발언하였다.³⁾ 그러나 2024년 북러 무역액이 3,400만달러에 달한다는 발언은 푸틴 대통령과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의 발언과 차이를 많이 보인다. 필자는 2023년 북러 무역액을 2024년 북러 무역액으로 오독하여 발언하였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인다. 유리 우샤코프 보좌관과 예브게니 니키코로프 의장의 북러 무역 언급 문장이 거의 유사한데, 두 사람 모두 발언에서 당해 무역액이 전년 대비 9배 증가한 것이며, 소련시절 이후 최대 교역액이라고 강조한 부분이 거의 동일하기 때문이다. 이런 점에 미루어보면 2024년 북러 무역액은 1억~2억달러 내외였을 가능성이 높다.

2024년의 북러 무역 품목도 알기 어려운데, 러시아 농업수출센터(Agroexport Center)는 SNS를 통해 러시아는 2024년 북한에 총 2만 2천톤의 농산물을 수출했는데, 그중 1위는 밀가루로 69%(1만 5,180톤)이며, 설탕이 10%로 2위(2,200톤), 해바라기유 6%(1,320톤)로 3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⁴⁾ 북중 무역 단가를 적용하여 기계적으로 북러 무역액을 추산하면 농산물 수출액 총합이 1천만달러를 넘지 않았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북러 무역의 제1 교역

1) 러시아 국영 통신사 타스통신 보도(<https://tass.ru/politika/21122469>, 검색일: 2026. 1. 27).

2) Olena Guseinova, PUTIN'S PARTNER: North Korea's Cooperation with Russia amid the war against Ukraine. Friedrich Naumann Stiftung, p.7, 2024.

3) 『연합뉴스』(2025. 6. 11), 「북러 교역 지난해 기록적 증가...연간 465억원」(<https://www.yna.co.kr/view/AKR20250611023300009>, 검색일: 2026. 1. 27).

4) 『RFA』(2025. 4. 9) 「러, 대북 농산물 수출 품목 확대」(<https://www.rfa.org/korean/in-focus/2025/04/09/north-korea-agriculture-russia/>, 검색일: 2026. 1. 27).

품목은 정제유(경유, 휘발유)였을 가능성이 높다.

2025년 북러 무역의 규모는 추정하기가 매우 어렵다. 추정 근거라고 할만한 언론 보도가 거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나마 이용 가능한 언론 보도를 찾아보면, 한 언론사는 러시아가 2025년 1~5월 동안 북한에 총 1만 600톤 이상의 농산물을 수출하였으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26% 증가하였다고 보도⁵⁾하였고, 다른 언론사는 러시아가 2025년 1~7월 동안 북한에 수출한 밀가루가 전년 대비 50% 증가한 330만달리였다고 보도하였다.⁶⁾ 2025년 러시아의 대북 농산물 수출이 26% 증가하였다는 보도가 있으므로 2025년 북러 무역도 어느 정도 증가하였을 것이라고 추정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2025년 북러 무역은 1억 5천만달러~2억 5천만달러 수준 정도가 될 것이라고 짐작해 볼 수 있지만, 이것도 근거가 탄탄하지는 않다. 북러 무역은 북중 무역을 보조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북러 무역 전체가 북중 무역의 한달 무역액 수준으로 규모가 작은 상황이다.

IV. 맺음말

2025년 북중 무역은 수치상으로는 코로나19 팬데믹에서 완전히 벗어나 UN 대북제재가 강화되었던 2018~19년 수준의 무역을 회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양적 회복의 이면에는 심각한 구조적 불균형이 자리잡고 있다. 캄보디아나 라오스 등 유사한 경제 규모를 가진 국가와 비교하였을 때 북한경제의 회복력은 여전히 낮은 수준에 머물러 있다. 특히 연간 18억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상품수지 적자를 북한경제가 감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2025년 북한의 수입에서 주목할 점은 소비재 수입의 폭발적인 증가이다. 이는 북한의 수입에 있어 2025년 북한경제 성장의 동력이 산업생산 확대보다는 민생 소비의 회복에 있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북한 당국이 추진한 지방발전 20×10 정책, 그리고 도시와 농촌의 살림집 건설, 사회주의 유통망(국영상점) 확충에 있다. 특히 농업 분야에서 소비재 수입 증가가 전체 소비재 수입 증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설탕과 콩기름 등의 기초 식품, 그리고 가금류 등의 육류 수입이 증가한 것은 북한 주민들의 후생 수준을 개선하려는

5) 서울평양뉴스(2025. 6. 20), 「러, 북에 돼지고기만 12억 수출...'보통 아닌 북러 밀착 방증」(<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6450>, 검색일: 2026. 1. 27).

6) 서울평양뉴스(2025. 6. 20), 「러 시베리아, 북에 밀가루 540톤 수출」(<https://www.sp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3873>, 검색일: 2026. 1. 27).

당국의 정책 의도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계 설비에 대한 투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안정적인 원부자재 공급이 보장되지 못한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소비재 중심의 수입 확대는 미래 성장 잠재력의 잠식이라는 부메랑으로 돌아올 위험이 큰 상황이다. 현재의 소비재 수입 확대는 펜데믹 기간 동안 축적된 외환보유고와 비공식적인 외화 수입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어 이를 지속가능하게 할 수 있는 재정적인 기초가 견고하지 못하는 상황이다.

북한의 수출에서 주목할 점은 섬유·의류에 집중된 무역과 비공식 무역(밀무역)이다. 북한의 수출입 품목이 모두 가발·속눈썹·가수염 그리고 섬유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중 섬유가 밀무역으로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밀무역 때문에 북한의 상품수지 적자는 실제보다 작을 가능성이 크다. 섬유·의류 산업은 북한 수출 산업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북한은 수입 1위 품목인 사람 머리카락(HS 6703)을 들여와, 수출 1위 품목인 가발·속눈썹·가수염으로 만들어 수출하는 구조를 하고 있다. 그리고 그 외에도 합성필라멘트사 직물(3위), 메리야스 편물(4위) 등의 수입도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다. 합성필라멘트사 직물(3위), 메리야스 편물(4위)을 가공하여 만든 섬유·의류는 통계에 나타나지 않는 밀무역 형태로 수출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공식·비공식 무역에서 북한은 중국에 상당한 수준으로 의존하고 있다.

특히, 북한의 대중 수출입에서 광둥성과 산둥성 등 중국 남부 연안지역과 교역이 증가하는 것은 국제사회의 감시망을 피하기 위한 북한의 무역 다변화 전략으로 풀이된다. 이는 단순히 물류 경로의 변화를 넘어서 북한이 중국 내에서 다양한 경제 주체들과 결탁하여 제재 우회 경로를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향후 북한은 가공무역의 부가가치를 극대화하여 공식 수출 규모를 더욱 늘려가는 동시에 밀무역 형태로 이루어지는 수출 규모도 더욱 확대하는 방향으로 나갈 가능성이 크다. 이를 통해 상당한 규모의 상품무역수지 적자를 해소하려고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북한의 외화 확보 전략, 즉 수입 확대를 위한 수출 상품 육성 정책이 실패하게 된다면 2025년에 대폭 증가하였던 북한의 수입이 급격히 위축될 수밖에 없다.

북한과 러시아의 무역은 구체적인 규모를 파악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3~25년을 거치면서 무역액이 지속적으로 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북중 무역에 비하면 약 10% 수준에 불과해 북중 무역이 주를 이루고 북러 무역이 이를 보완하는 형태를 하고 있다. 북러 무역의 주요 거래 품목은 정제유(경유, 휘발유)이며, 그 외에도 밀가루, 설탕 등을 교역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2026년에도 북러 무역은 소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참고문헌

〈웹사이트〉

중국 해관(<http://english.customs.gov.cn>, 접속일: 2026. 1. 22).